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7, Vol. 26, No. 2, 101-113

성별과 애착유형이 연애 질투에 미치는 영향*

함 진 선†　　이 장 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애관계에서 나타나는 질투와 질투에 의해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애착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은 자기 짝의 성적 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느끼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부정에 질투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가정한 진화론적 질투기제(Evolved Jealousy Mechanism)를 반복검증하고, 성차 내 질투의 조절변인으로 애착유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대학생 189명(남자 82명, 여자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원변량분석으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화론적 관점의 질투기제 가설이 반복 검증되었으며, 질투와 질투 스트레스에 미치는 성별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런 효과는 남성에게서만 지지되었다. 즉, 불안 애착유형의 남성이 안정 애착 남성보다 연인의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와 질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애착유형이 질투와 질투 스트레스의 성차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질투, 안정 애착, 불안 애착, 성적 부정, 정서적 부정

* 이 논문은 2006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www.kci.go.kr

질투(jealousy)는 관계의 산물이자 관계의 질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이며 복잡한 인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질투는 가치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관계의 질이 제3자로 인해 손상당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으로서(Parker & Barrett, 1997), 관계의 위협에서 오는 불안과 이런 위협을 발생시킨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정이 핵심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관계의 위협에 대한 다양한 사고(열등적 사고, 상대방이 떠날 것이라는 믿음)와 행동반응(울음, 비난, 확인되지 않은 사실유포, 폭력)까지도 수반한다(de Silva, 1997).

이러한 질투에는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순기능(Power & Dalgleish, 1997)이 있는 반면, 대인관계 부적응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즉, 질투는 공격, 살인, 증오, 우울, 자살,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종결 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Kingham & Gordon, 2004; Pines, 1992). 더군다나 질투는 많은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솔직히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부적응과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기초한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질투를 설명하는 주요한 관점은 진화론적 질투기제(Evolved Jealousy Mechanism)로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진화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의 질투를 선천적으로 발달시켜왔다고 주장하였다(Buss, 1995; 2000). 즉, 남성들은 자신의 짝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더 많이 괴로워하며, 여성들은 자기 짝이 다른 여성과 정서적 애정관계를 발달시키는 상황에서 더 많이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투에 대한 남녀의 진화론적 차이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으며(Schutzwohl & Koch, 2004; Shackelford, Buss, & Bennett, 2002), 게다가 질투의 성차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나 연령, 학력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Harris & Christenfeld, 1996; Buss, Larsen, Westen, & Semmelroth, 1992), 네덜란드, 독일, 일본, 중국(Buunk, Angeleitner, Oubaid, & Buss, 1996), 한국(함진선, 이장한, 2006; 김교헌, 2004)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느낀다는 성차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성차의 크기(10～40%)가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대학생의 경우 남성의 60%가 성적 부정 상황에 대해 괴롭다고 평가한 반면, 중국의 남성은 25～3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Harris, 2003; Buunk et al., 1996), 대학생뿐 아니라 주부와 회사원 등의 일반 성인 집단을 포함시킨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의 52.3%가 성적부정 상황에 대해 괴롭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80.5% 가 정서적 부정 상황에 대해 더 괴롭다고 응답하였다(김교헌, 2004).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질투는 진화론적 기제가 아닌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연령, 학력, 관계의 지속기간, 출생순위)과 여러 심리적 변인들(성격, 자아 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Harris, 2000).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 동성애자 집단은 남성 이성애자 집단과 달리 정서적 부정 상황에서 더 많은 질투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여성 이성애자 집단과 유사한 질투 특성을 보였다(Sheets & Wolfe, 2001). Sagarin, Becker, Guadago, Nicastle과 Millevoi (2003)은 배우자의 외도

www.kci.go.kr

를 경험했던 남성과 외도 경험이 있었던 여성의 경우에 성적 부정 상황에 대해 질투를 더 심하게 느끼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과거 혹은 현재 깊은 신체접촉을 포함한 연애경험 있는 남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Murphy, Vallacher, Shackelford, Bjorklund, & Yunger,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한 변인이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전 경험이 성차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 대상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결속감을 의미하는 애착경험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초기 애착연구에서는 애착이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하지만, 애착이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을 거쳐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며 성인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 대상은 연인으로 옮겨가게 된다. 최근 성인의 친밀한 관계를 연구하는데 Bowlby(1980)의 애착이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Noftle & Shaver, 2006; Kirkpatrick & Davis, 1994). 애착이란 Bowlby(1980)가 유아와 그들의 양육자 사이의 유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 특정 대상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결속감, 또는 감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대학생의 경우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보다도 연애관계에 있는 사람을 더 가깝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Bercheid & Walster, 1978). 따라서 가치 있게 여기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는 연애관계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할 심리적 문제이다.

무엇보다, 질투가 이미 확립된 관계나 가진 것을 제 삼자에게 빼앗기거나 손상당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불안 반응은 애착 형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분리와 이별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White & Mullen, 1989). 또한, 애착은 성인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애착유형이 대인관계의 주관적인 측면(관계만족감)과 객관적인 산물(이별, 파혼, 이혼)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Mikulincer & Shaver, 2003). 따라서 질투가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며 정서, 인지, 행동 반응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애착유형은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 애착유형을 영아기 애착유형(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에서 밝힌 안정 애착유형, 불안·양가 애착유형, 회피 애착유형의 3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안정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타인을 신뢰하고 쉽게 가까워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불안·양가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하고 파트너와 완전히 몰입되기를 원한다. 끝으로, 회피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 한다. 따라서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특성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adecki-Bush, Farrell, & Bush, 1993).

친밀한 관계 경험에 대해 불안 애착유형을 보고한 성인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Bartholomew & Horowitz, 1991), 강한 정서적 결속감을 원하면서도 파트너의 애정과 헌신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zan & Shaver, 1987).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질투와 애착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불

www.kci.go.kr

안·양가 애착유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질투를 보이는 반면, 회피 애착유형은 질투와 관련이 적었다. 특히 불안·양가 애착 유형의 청소년은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애착 청소년도 불안·양가 애착 청소년과 유사하게 질투를 보였다(Roth & Parker, 2001).

특히, 불안 특성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질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성격적 변인으로는 신경증적 경향성과 불안이 질투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일관되게 밝혀졌다(Bringle, 1991; De Moja, 1986). 성인 애착은 그 근간이 되는 초기 유아 애착과 구별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연애질투와의 관련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유아기는 신체적, 정서적인 면에서 주로 어머니(주 양육자)가 유아를 일방적으로 돌보아 애착의 대상이 되지만, 성인기의 남녀는 상호적으로 정서적 결속감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 성인기 애착에서는 성적(sexuality)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성인애착의 이러한 특성이 질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파트너의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초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이론을 성인 애착유형으로 확장하여 안정과 불안 애착유형이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질투의 성차를 반복 검증하고, 애착유형이 남성과 여성의 질투와 질투 스트레스 차이를 설명하는 조절변인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C, K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연애관계에 관여할 확률이 높고 연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연구의 정보가 불필요하고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189명(남자 82명, 여자 107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 각각 22.61세(SD=2.00), 22.19세(SD=1.62)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연령차는 없었다.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는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9명(남성 47.6%, 여성 46.7%), 반면 '현재 가볍게 만나고 있다', '현재 깊은 관계(신체접촉을 포함)를 맺고 있다', '동거' 등의 응답이 100명(남성 51.2%, 여성 53.3%)을 차지하였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과거 깊은 관계(신체접촉 포함)를 맺은 적인 있다'가 64명(남성 31.7%, 여성 35.5%),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가 10명(남성 8.5%, 여성 2.8%)으로 나타나, 과거를 포함해 연애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3명(남성 82.9%, 여성88.8%), 연애경험이 없는 사람은 10명(남성 8.5%, 여성 2.8%)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른 현재 연애유무와 과거 연애경험 간 차이는 없었다.

www.kci.go.kr

측정 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문지

일반적 특성 질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 이성관(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파트너와의 연애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결혼 혹은 동거', '깊은 관계(신체접촉을 포함)를 맺고 있다', '가볍게 만나고 있다'의 네 가지 응답범주로 구성되었다.

질투 질문지

질투 질문지는 Buss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한 것으로 지시문(시나리오)을 읽고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는 강제선택 방식(forced-choice question)의 자기보고식 측정 질문지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2문항 각각에 대해 질투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2문항(5점 리커트 척도)과 원 문항과 유사한 가정상황(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 둘 다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경우)을 묻는 1문항을 더 추가하여 총 5문항의 질투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추가된 문항은 인위적으로 한 가지 부정 상황을 선택해야하는 강제선택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이중사살의 가설(남성은 여성의 성적인 부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정서적인 부정을 통해 나머지 다른 하나의 부정을 이중으로 확신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질투의 심리적 특성을 선택한 부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측정하여 보완하였다(DeSteno, Bartlett, Braverman, & Salovey,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정도와 질투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먼저, 질투정도는 성적 부정 상황에 대한 응답을 '1', 정서적 부정 상황에 대한 응답을 '0'으로 하여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부정에 대한 질투가 강하며, 0의 값은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질투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는 성적부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양의 값(+)'으로, 정서적 부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음의 값(−)'으로 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8 ~ +8값을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값을 가질수록 파트너에 대한 정서적 부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Buss와 그의 동료들(1992)의 연구에서는 원 2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6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전체 5문항의 Cronbach's α= .9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질투정도와 질투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7, .78로 나타났다.

성인 애착척도

성인 애착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Hazan과 Shaver(1987)의 세 가지 애착유형(안정, 회피, 불안·양가)을 기초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긍정적 진술문항 10문항과 부정적 진술문항 8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5점 척도이다. 대인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상대방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친밀감),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이용가능하거나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정도(의존감), 자신이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을 불안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정도(불안감)의 3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 두 가지 애착 유형(안정애착과 불안 애착)이 질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 척도의 점수를 통해 친밀감이 가장 높은 경우 안정 애

www.kci.go.kr

착유형으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경우 불안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노유진, 2006). 성인 애착 척도의 불안감 하위 척도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와 함께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안·양가 애착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개 이상의 하위척도에서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경우 특정 애착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안정 애착유형 80명(전체 42.3%, 남성 50.1%, 여성 36.4%), 불안 애착유형 20명(전체, 10.6%, 남성 8.5%, 여성 12.1%)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azan과 Shaver(1987)가 보고한 안정 애착(56%), 불안·양가 애착(19%)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의 안정 애착(45.6%), 불안·양가 애착(14,6%)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노유진, 2006).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 48명(안정 애착유형 41명, 불안 애착유형 7명), 여성 53명(안정 애착유형 39명, 불안 애착유형 13명)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친밀감 Cronbach's α = .61, 의존감 Cronbach's α 값= .60, 불안감 Cronbach's α = .7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윈도우형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하였다. 성별과 애착유형이 질투와 질투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질투 및 질투 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표 1은 성별과 애착유형 집단에 따른 성과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와 질투 스트레스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질투정도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187)=4.08$, $p<.01$). 질투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t(187)=4.24$, $p<.01$).

표 1. 성별과 애착유형에 따른 질투 및 질투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남성		여성	
	안정애착	불안애착	안정애착	불안애착
질투 정도	1.30 (1.25)	0.00 (0.00)	0.44 (0.94)	0.77 (1.30)
	1.20 (1.30)		.51 (.97)	
질투스트레스	-1.05 (6.01)	-7.86 (0.38)	-5.31 (4.10)	-3.15 (6.38)
	-1.40 (6.34)		-4.79 (4.64)	

* 질투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부정에 대한 질투가 높은 것을 의미하여 0은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의미(점수범위: 0~3). 질투 스트레스: 양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클수록 성적부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을 갖고 점수가 클수록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점수범위: -8~+8)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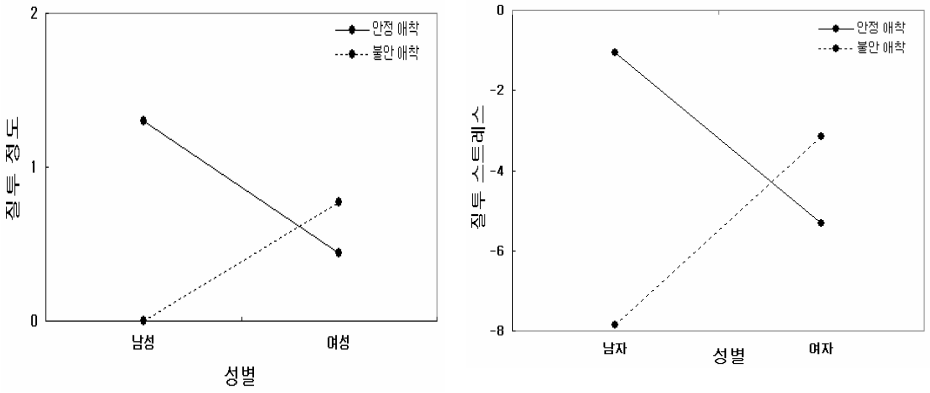

그림 1. 질투와 질투스트레스에 미치는 성별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성별과 애착유형이 질투와 질투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투에 미치는 성별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96)=8.08$, $p<.01$). 남성의 경우, 불안 애착유형을 보이는 개인이 안정 애착자보다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애착유형에 따른 질투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질투 스트레스에 미치는 성별과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F(1,96)=11.10$ $p<.01$). 남성의 경우, 불안 애착유형을 보이는 개인이 안정 애착자보다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애착유형에 따른 질투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적 시나리오의 상황에 대한 응답을 통해 성적 부정과 정서적 부정에 대한 질투와 질투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반복 검증하였고, 애착유형이 질투의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화론적 질투기제에 근거한 질투의 성차가 반복 검증되었으며, 질투의 성차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한 애착유형은 남성에게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진화론적 질투기제 관점의 가설이 반복 검증됨으로써 Buss(1995; 2000)가 주장한 질투기제에 따라 남성들에게는 파트너의 성적 부정과 관련된 단서를 민감하게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천적이고 특정한 모듈이 존재하며 이에 반해 여성들에게는 파트너의 정서적인 부정과 관련된 단서를 민감하게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천적 모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질투 정도에 있어서는 남성($M=1.20$)이 여성($M=.51$)보다 성적 부정 상황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진화론적 질투기제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질투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남성($M=-1.40$)과 여성($M=-4.79$) 모두 정서적 부정 상황에 대해 더욱 괴롭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욱 정서적 부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화론적 질투기제로 남성과

www.kci.go.kr

여성의 질투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한 애착유형은 남성에게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불안 애착 유형 남성이 안정 애착된 남성보다 파트너의 정서적 부정 상황에 대해 더욱 질투 많이 느끼며 질투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파트너의 사랑과 정서적 지원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고, 이로써 과도하게 사랑을 반복확인하려는 추구 성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Schachner & Shaver, 2002). 따라서 불안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파트너의 정서적 부정을 암시하는 단서에 민감하고 몰두하며, 정서적 부정 상황에 대해 더욱 괴로워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인 애착을 연구한 Hazan과 Shaver(1987)에 따르면, 불안·양가 애착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거 비 일관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과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경험한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몰입하기를 원하지만 상대방과 멀어지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애관계에서 기존에 자신에게만 집중되고 유지되었던 파트너의 정서적 지지와 자원이 제 삼자로 인해 위협받거나 상실되는 상황에 처할 때 질투를 더욱 많이 느끼게 되며, 정서적 부정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적절하고 통제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질투 스트레스 역시 높아지게 된다.

최근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과거 혹은 현재 깊은 신체접촉을 포함한 연애경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Murphy et al., 2006), 연애경험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깊은 신체접촉을 포함한 연애경험이 있는 남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해 질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성의 질투를 설명하는데 신체접촉을 포함한 연애경험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외도 경험은 파트너의 성적 부정에 대한 질투를 더 심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agarin et al., 2003).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이전 경험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애착경험의 영향을 받은 애착유형이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질투들 설명하는 중요한 조절변인인 것이 밝혀졌다.

반면,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애착유형의 조절효과가 지지되지 않았으며, Murphy 등(2006)의 연구에서도 연애경험이 여성의 질투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 가능성으로는 애착유형 이외의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이 질투의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애착유형의 조절효과가 남성의 질투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떠한 기제에 의한 것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정밀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성인애착의 중요성을 주장한 Hazan과 Shaver(1987)는 사랑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유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사랑유형과 애착 유형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Levy & Davis, 1988; Hendrick & Hendrick, 1992). 구체적으로, 사랑유형 중 소유적 사랑(mania)은 자신과 사랑에 빠진 상대에게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하며 연인에게 의지하면서 버림받을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소유적 사랑의 특성은 불안·애착 유형을 보이는 개인의 특성과 많이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소유적인 사랑을 하는 특성을 보였다(노유진, 2006). 뿐만 아니라 유희적 사랑(ludus)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즐기기 위한 일종의 게임 또는 놀이라고 생각하며 정서적 몰입과 헌신을 갖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보다 소유적, 유희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여러 문화

www.kci.go.kr

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밝혀졌다(Worobey, 2001). 질투의 성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경험적 요인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사랑 유형과 같은 다른 개인차 변인을 포함한다면 남성에게 나타나는 질투의 특성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안·양가 애착유형의 두드러진 특성인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하고 파트너와 완전히 몰입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때때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며,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발생시킬 소지도 많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병적 질투(morbid jealousy)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병적 질투는 파트너의 부정에 대해 과도하게 몰두한 나머지 용납될 수 없는 행동까지 저지르는 부적절한 질투를 의미하는데, 남자에게서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Kingham & Gordon, 2004). 남성의 병적 질투의 발전 가능성 애착유형이 관여될 가능성도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애착유형의 표본의 사례수가 작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표본의 수가 다양한 이전 애착유형 연구와 유사한 비율로 안정애착과 불안 애착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일반화화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애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비슷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파트너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Collins & Read, 1990), 한쪽의 특정 애착유형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관계 불만이 발생하게 된다(Bartholomew, 1990). 이에 근거하여 연애관계에 있는 남녀쌍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애착유형이 질투의 성차를 미치는 효과와 그 기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시나리오와 강제선택방식을 이용하여 질투를 측정하였으나, 질투의 성차를 조절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고 질투의 다양한 특성(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질투 측정 도구를 개발・사용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연애에 많이 관여할 것이며 성인애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부, 직장인, 노인의 경우 다른 질투의 조잘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시킨다면 질투에 관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교헌(2004).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연인관계에서의 질투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771-792.

노유진(2006). 성인애착유형이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함진선, 이장한(2006). 질투의 성차와 문화차: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 143-155.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Bartholomew, D.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Bartholomew, D.,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www.kci.go.kr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ercheid, E., & Walster, E.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MA: Addison-Welsley.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New York: Basic Books.

Bringle, R. G. (1991). *Psychological aspects of jealousy: A transactional model.* In P. Salovey (Eds.),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 (pp. 103-131). New York: Guilford.

Buss, D. M. (1995). Evolutionary psychology: A new paradigm for psychological science. *Psychological Inquiry, 6,* 1-30.

Buss, D. M. (2000). *The dangerous passion: Why jealousy is as necessary as love and sex.* New York: Free Press.

Buss, D. M., Larsen, R., Westen, D., & Semmelroth, J. (199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physiology, and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 3*, 251-255.

Buunk, B. P., Angeleitner, A., Oubaid, V., & Buss, D. M. (1996). Sex differences in evolutionary and culture perspective: Tests from Netherlands,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Science,* 7, 359-363.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De Moja, C. A. (1986). Anxiety, self -confidence and romantic attitudes towards love in Italian undergraduates. *Psychological Reports, 58*, 138.

de Silva, P.(1997). Jealousy in couple relationship: Nature, assessment and therap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5*, 973-985.

DeSteno, D., Bartlett, M., Braverman, J., & Salovey, P. (200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ary mechanism or artifact of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103-1116.

Harris, C. R. (2000). Psychophysiological responses to imagined infidelity: the specific innate modular view of jealousy reconside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082-1091.

Harris, C. R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jealousy over real and imagined infidelity: An examination of the social-cognitive and evolutionary psychology perspect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319-329.

Harris, C. R., & Christenfeld, N. (1996). Jealousy and rational responses to infidelity across gender and culture. *Psychological Science, 7,* 378-379.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Hendrick, S., & Hendrick, C. (1992). *Linking, loving, and relating* (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Kingham, M., & Gordon, H. (2004). Aspects of morbid jealousy. *Advanced Psychiatry Treatment, 10,* 207-215.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Levy, M., & Davis, K. E.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www.kci.go.kr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5, pp. 53-15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Murphy, S. M., Vallacher, R. R., Shackelford, T. K., Bjorklund, D. F., & Yunger, J. L. (2006). Relationship experience as a predictor of romantic jealous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761-769.

Noftle, E. E., & Shaver, P. R. (2006). Attachment dimension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ssociations and comparative ability to predict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179-208.

Parker, G,. & Barrett, E. (1997). Morbid jealousy as a varia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1*, 133-138.

Pines, A. M. (1992). *Romantic jealousy: Understanding and conquering the shadow of love*. New York: St. Martin Press.

Power, M., & Dalgleish, T. (1997). *Cognitions and emotions: From order to disorder*. East Sussex, UK: Psychology Press.

Radecki-Bush, C., Farrell, A. D., & Bush, J. P. (1993). Predicting jealousy responses: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on threa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6,* 181-196.

Roth, M. A., & Parker, J. G. (2001). Affective and behavioral response to friends who neglect their friends for dating partners: Influences of gender, jealousy, and pro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24,* 281-296.

Sagarin, B. J., Becker, D. V., Guadangno, R. E., Nicastle, L. D., & Millevoi, A. (2003).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jealousy: The moderating influence of infidelity experience and sexual orientation of the infidelity.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4,* 17-23.

Schachner, D. A., & Shaver, P. R. (2002). Attachment styles and human mate poaching. *New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 122-129.

Schutzwohl, A., & Koch, S. (2004). Sec differences in jealousy: The recall of cues to sexual and emotional infidelity in personality more and less threatening context condition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5,* 249-257.

Shackelford, T. K., Buss, d. M., & Bennett, K. (2002). Cues to infide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034-1045.

Sheets, V. L., & Wolfe, M. D. (2001). Sexual jealousy in heterosexuals, lesbians, and gays. *Sex Roles, 44,* 255-276.

White, G. L., & Mullen, P. E. (1989). *Jealous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Worobey, J. (2001).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love attitudes in a college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461-468.

1 차원고접수 : 2007. 10. 25.
수정원고접수 : 2007.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7. 12. 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7, Vol. 26, No. 2, 103-115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and Sex Differences on Romantic Jealousy

Jinsun Hahm **Jang-Ha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a interaction effect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sex differences on jealousy and evoked distress by jealousy in romantic relationship. In this study, we replicated the Evolved Jealousy Mechanism (EJM) that men will be more upset and distressed by partner's sexual infidelity, whereas women will be more upset and distressed by emotional infidelity, and then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n within-sex differences. To test this purpose, 189 university students (82 males and 107 female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nd two-way ANOVAs were used. As a result, we replicated the EJM and demonstrate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sex differences on jealousy and evoked distress by jealousy, but only among men. Consequently, men with an anxious attachment style were more jealous and distressed by partner's emotional infidelity than those with secure style. The most important finding in the present study was that attachment styles would be moderators of within-sex differences in jealousy and evoked distress by jealousy.

key words: jealousy, secure attachment, anxious attachment, sexual infidelity, emotional infidelity

www.kci.go.kr

부 록

질투 질문지(Jealousy Questionnaire, Buss et al., 1992)

<시나리오>

당신이 과거에 가지고 이었고, 현재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갖고 싶은 깊고 열렬한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깊은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이 당신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항 1-1. 무엇이 당신을 더 심적으로 괴롭히거나 속상하게 합니까? (한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가) 당신의 파트너가 그 사람과 열정적인 성관계를 즐기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나) 파트너가 그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느껴가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문항1-2. 당신이 선택한 상황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상황보다 얼마만큼 더 당신을 힘들고 마음 상하게 했습니까?

더 속상하지 않다 ⓪ — ① — ② — ③ — ④ 더욱더 속상하다

문항 2-1. 무엇이 당신을 더 속상하게 합니까? (한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가) 당신의 파트너가 그 사람과 새로운 섹스체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나)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당신의 파트너를 상상하는 것

문항 2-2. 위의 두 가지 선택 중 당신이 선택한 상황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상황보다 얼마나 더 당신을 속상하게 합니까?

더 속상하지 않다 ⓪ — ① — ② — ③ — ④ 더욱더 속상하다

문항 3. 다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느 쪽을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더 속상하게 합니까? (한 곳에 표기해 주십시오)

(가)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열렬한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

(나)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상상하는 것

* 강제선택 측정방식에 의한 원 문항: 문항1-1, 문항2-1

www.kci.go.kr